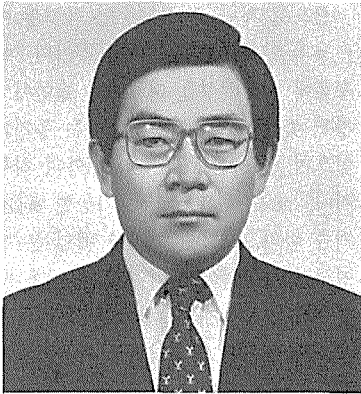


지난 '73~'74년 第一次 석유위기의 근본원인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油價 때문이었다. 그 주동자는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油價를 억제한 消費國들이다. 인위적으로 낮았던 油價로 世界의 石油依存度는 심화되었다. 이런 왜곡된 현상이 수정되었을 때는 이미 그 時期가 늦었고 油價는 1년사이에 배럴당 2.59달러에서 11.65달러로 치솟았다.

에너지情勢의 변화와 新에너지 秩序의 구축



李鳳瑞
(動力資源部 次官)

'79~'80년 第二次 석유위기의 원인은 1次위기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당시 油價는 낮지 않았다. 주원인은 石油生産者들의 탐욕과 消費者들의 對備不足이 어우러진 복합된 결과였다. 生産者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市場을 지배하였고 消費者들은 第一次위기의 기억을 되살리며 石油不足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자기방어에 급급하였다. 生産者들간에는 탐욕에 대한 경고가 무시되었고 消費者들간에는 위기의식에 의한 충동구매를 막을 통제력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長期石油供給契約는 現物去來의 활발한 출현으로 종종 파기되었고 生産業자들은 시장메카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변동폭이 큰 現物價에 따라 公示價의 인상을 정당화하였다. 반면 消費者들은 적정한 石油비축량의 부족, 혹은 에너지節約技術의 결여로 인해 속수무책이었다. 그 결과 34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公示價는 배럴당 13달러에서 34달러로 거의 3배가 올랐다.

2次 石油危機 이후 5년도 안된 현재 우리는 또하나의 石油危機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生産者나 消費者의 대응태세로 보아 이러한 위기가 쉽사리 종식될 것 같지는 않다. 불행하게도 얼마안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은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아직도 OPEC의 일부 회원국은 배럴당 28달러수준의 油價維持를 원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사실

이 자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日本 東京에서 열린 "태평양의 에너지協力에 關한 심포지움(Symposium on Pacific Energy Cooperation)"에서 李鳳瑞동력자원부 차관이 행한 英文發表文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이러면 그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市場의 조짐을 명백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消費國의 태도도 역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은 최근의 油價下落이 自由市場原理의 결과이며 따라서 낮은 油價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에너지節約手段이 세계경제에 너무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낮은 油價로 인해 경제가

연속이 아닌 에너지市場의 새로운 질서— 즉 에너지市場이 일련의 위기와 파동이 아닌 順理的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적절한 時期라고 믿는다. 새로운 질서는 生産者, 消費者 모두를 위해 에너지의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現實의인 시각과 타협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것은 파동보다는 안정을, 대립보다는 타협을 강조한다. 새로운 질서는 일단 구축되면 근시안적인 결정

**● 生産者들은 자원무역계약에서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조항을 없애고 독점적인
에너지 가격을 폐지하여야 한다 ●**

과거의 에너지 낭비적인 시대로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後者의 견해가 다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消費者의 수용자세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油價下落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득이 소폭에 지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石油에서 他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잠재되어 있는 石油需要를 자극하는 위험한 조짐도 있다.

生産者나 消費者의 입장이 모두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서로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에너지市場은 農家들이 돼지파동의 악순환(hog-cycle)을 겪는 것처럼 큰 변화를 겪게 될 위험이 있다.

商品價格의 큰 변동은 生産者나 消費者 모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 그것이 에너지資源의 경우에는 세계경제에 크나큰 害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에 과거 12년 동안 불안정했던 石油市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시험해볼 適期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會議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會議에는 에너지수출국과 수입국의 대표들이 참석해 있어 무엇보다도 현사태의 진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경험을 토론했으므로 우리는 우리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과거 실수의 반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本人은 또한 지금이 과거의 교훈을 살려 위기와 파동의

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合理的인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연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消費國들은 市場의 장기적인 안정과 신속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하고 生産國들 역시 市場機能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또 生産國과 消費國이 상호간의 利益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資源貿易에서 不公正性을 수정할 시기도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生産業者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資源市場을 독점할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고 消費者들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역시 生産業者들은 資源貿易契約에서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조항을 없애고 독점적인 에너지 가격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번째 경우는 輸出原油의 FOB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LNG輸出가격이다. 같은 熱量下에서는 LNG는 石油보다 우위의 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LNG가격은 油價에 프리미엄이 붙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資源 그 자체만의 비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편견된 가격인 것이다. 공정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LNG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다른점들도 石油와 비교되어야 한다.

즉 港口設備를 위한 投資費, 輸送費 등 연료 그 자체이외에 이용을 위해 투입되는 여러가지 요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수요와 세계매장량 같은 것들이 함께 비교되어야 한다. 上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LNG는 확실히 石油에 비해 열등하다. 石炭가격이 石油가격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과 같이 LNG가격도 石油가격과 직접적인 연동관계 없이 산정되어야 한다. 높은 LNG가격은

현재의 油價하락은 강력한 마취제와 같아 消費者들은 세계石油市場의 현상태에 대해 쉽게 자기만족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만약 그당시 消費者들의 對備姿勢가 되어 있었다면 과거 12년의 經濟史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油價가 3배로 올라 가는데는 3개월도 채 안걸렸지만 油價가 내려가기까지는

●消費國들은 석유 備蓄과 에너지研究·開發에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政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LNG市場의 한계성 때문에 결국에는 消費者보다는 生産者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LNG供給契約의 take-or-pay조항도 역시 불공정한 거래의 한 예이다. 이 조항이 生産者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deliver-or-pay와 같은 상응된 조항이 消費者의 보호를 위해 똑같이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은 LNG貿易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부의 우라늄과 石炭契約에서도 最低價格(floor price)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 역시 예상하지 못한 가격하락에 대비해 生産者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상하지 못한 가격상승으로부터 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한 最高價格(ceiling price)은 없는 것인가.

生産者와 消費者의 이익이 똑같이 보호될 때 長期供給契約는 공정한 것이며 諸般狀況이 악화될 때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石炭生産業者와 그들의 현재 價格政策은 적절한 설명이 될 것이다. 즉, 수년간 石炭은 石油市場을 크게 잠식하여 왔으며 아직도 이러한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石炭生産業者는 油價와 대비한 石炭價의 조절을 꺼려하고 있다. 이런 價格政策이 수정되지 않는한 石油에서 石炭으로의 전환이 반전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빨리 중단됨으로써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

지금까지 에너지市場與件을 개선하기 위해 生産國들이 노력해야할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에는 消費國들이 노력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0년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油價가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市場의 단기적인 변동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써 政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石油비축과 에너지研究 및 개발은 政府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나아가서 上記 두분야는 石油수입국 政府들이 정책의 목표설정과 그 실행을 행함에 있어 서로가 협조한다면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주요 石油輸入國 政府가 비상용 石油備蓄을 유지한다는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확인은 이번 5월에 개최되는 東京頂上會談이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국제 정책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先進國들이 石油備蓄에 대해 리더쉽을 보이고 이를 확고하게 실행한다면 여타 石油輸入國들도 기꺼이 石油를 비축할 것으로 확신한다. 리더쉽과 協力を 강조하는 것은 油價下落時의 石油備蓄이란 인기있는 정책이 되지못하며 또 消費國들간의 협조없이 개별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은 에너지연구 및 개발 그리고 보다 더 의의있는 국제협력에 政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이것은 民間部門에서 점차 지원이 없어져 가는 에너지研究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研究分野를 국제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중 하나이다. 研究活動이 넓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협력체제가 광범위해야만 한다. 즉, 보다더 효과적인 研究를 위해서는 雙務협력과 같은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人力, 制

度, 財政 등이 일체가 됨으로써 에너지연구와 개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消費國間的 협력체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은 IEA가 資格을 갖춘 모든 消費國을 가입시켜 再構成할 것을 제안한다. 제2차 석유위기의 여파로 OECD 諸國을 위해 창설된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프로그램과 政策樹立의 자문기관으로서 그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안정된 長期投資環境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약하면, 長期契約은 市場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을 준다. 이점은 특히 생산자와 消費者 공히 장기적인 移行條件이 요구되는 資源交易에서는 더욱 그렇다.

石油貿易에서 長期契約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長期契約의 이점이 가장 필요할 때 많은 生産業者들은 그들이 맺은 長期契約의무를 저버리고 現物去來를 택하고

● 소비국과 생산국들은 상호간의 이익을 존중하는 長期契約으로의 回歸가 바람직하며, 이것은 석유시장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몇몇 대규모 에너지消費國이 IEA의 회원국이 아닌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7번째의 石油輸入國인 한국과 브라질이 그예가 되겠다. IEA가 消費國들을 위한 會議體로서의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회원국들이 더 많아야 할 것이다. IEA에 세계의 모든 주요 石油輸入國들이 참여한다면 IEA의 情報體制는 더욱 확대되고 회원국들에 관련된 복잡한 세계에너지문제를 상호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消費國과 生産國의 협력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長期契約으로의 복귀와 價格安定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長期契約은 유용한 市場制度의 하나이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덜어준다. 長期契約에서는 消費者와 生産者가 위험부담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또 확실하고

있다. 그러한 파기행위로 石油供給者는 일시적인 수익의 증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나 消費者에 대한 信賴度 低下라는 값비싼 댓가를 치를 것이다. 消費者는 가격과 공급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長期契約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찾으려 하고 있다. 현石油市場의 불안정은 長期契約制度的 붕괴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長期契約이 回生한다는 것은 곧 生産者나 消費者가 상대방의 희생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되는 질서있는 市場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이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태평양 연안국들 사이에서 먼저 노력을 시작할만한 가치있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

